

新 年 辭



친애하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정말 多事多難했던 2005년을 보내고 이제 2006년의 희망찬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丙戌年 새해에도 전력기술인과 그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예기치 못했던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력기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의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는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 통과에 대한 농민들의 항거, 불법도청 사건, 줄기세포 파문 등 어수선한 연말을 보냈고, 외적으로는 고유가 지

속,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우리 전기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내·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내실을 더욱 견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제도를 정착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안전 확보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지난해 완료하였고,

작년 초부터 발생된 현안사안인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와 민간대행업 제도 폐지에 적극 대응하여 현행 존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3회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과 “제2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등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역량을 다시 한번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지난 40여 년간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었던 우리 협회가 회원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9월 서울 사당 전철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자체 매입하여 ‘협회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 마련한 자체 회관으로 입주하여 우리 협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참다운 전력기술인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협회는 “제4회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과 “제3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를 계속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회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자체 경쟁력 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각종 연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 전력기술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여러분들께서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여 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격언처럼 꿈을 갖고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면 無에서 有를 創造할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큰 포부를 가지시고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탈 때 달리다 멈추면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서 세계로 미래로 가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협회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

“하면 됩니다”

뜻을 모아 병술년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장래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사명감을 갖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일을 신명나게 열심히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생활을 즐기는 가운데 협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만복이 깃들여 소원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丙戌年 새 아침에....

李 喜 平 拜 上